

NEWS

2025년 8월 1일 금요일

내년 10월 광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한다

윤석열 오늘 체포영장 집행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8월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전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임영진 기자 looks@

▶1면 ‘한미 관세 타결’서 계속

민간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관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사령

△성명준 순 편집국 지역사회부
서부지역본부 (목포·무안·신안) 부장
(2025년 8월 1일자)

9년만의 조정...도시철도2호선 개통 대비 선제적 조치 시, 4~24일 시민설문조사...전문가·업계 등 의견 반영

광주 광천권역에 조성 중인 복합소방물 '더현대 광주'와 주상복합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급행 간선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하고, 광산구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이 같은 계획을 포함, 오는 2026년 10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광주 시내버스 개편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시행하는 대규모 조정으로, 도시철도2호선 개통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개편 방향은 간선 노선의 연결성과 신속성 강화, 지선 노선의 생활권 접근성

향상, 다양한 교통 수요와 이동패턴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체계 도입, 장거리·혼잡 노선 개선 및 공동배차 노선 해소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운행 안정성 강화다.

광천권역에 조성 중인 복합소방물 '더현대 광주'와 주상복합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급행 간선버스 4개 노선을 신설하고, 광산구 교통소외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도 검토한다.

또 광주와 인접 시·군을 운행하는 노선 13개에 대해서는 중북구간 정비와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노선 설계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24일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광주시 누리집, 광주버스 운행정보시스템, 버스 내 안내문 정보무늬(QR코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구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도 오프라인 설문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노선 개편 과정에서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혁신회의, 버스조합 및 운수사 간담회 등을 병행하며, 현장 및 경영 측면의 실질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와 시물레이션 검증 등을 통해 2026년 10월 노선 개편 시행 전까지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선 통합공항공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시민,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에 최적화된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구축 정책 세미나' 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극항로 시대...여수·광양항에 거점항만 구축

전남도, 국회서 관계기관·산학 전문가 정책세미나 개최 김영록 지사 “정책 지원·제도적 기반 마련 최선 다할 것”

전남도는 31일 국회에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구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여수·광양항의 미래 비전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북극항로를 둘러싼 글로벌 해양물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여수·광양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실질적 정책 방향과 실행과제를 도출해 국회,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동 주관하고, 권항업·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기관 관계자,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해 여수·광양항의 미래 비전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여수·광양항은 원유, 석유화학, 철광석 등 비컨테이너 화물(89% 상당) 처리에 특화된 항만이다.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주로 운송하는 화물(2023년 기준 비컨테이너 99%, 컨테이너 1%)과 산업구조 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항만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기반과 항만 인프라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허브항만을 구축해 북극

자원의 거점이자 중점, 환적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항만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 친환경 병커링 기지 조성을 통해 LNG·암모니아 등 청정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을 마련,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수리조선 산업을 특화해 대형 선박의 정비·수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쇠빙선과 내빙선 등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정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해양물류 거점으로 충분한 잠재력과 준비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국회, 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시, 자치구에 호우피해 복구비 긴급 교부

정부 재단대책비 19억9000만원...북구·광산구 우선 지원

광주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배정된 재단대책비 19억9000만원을 자치구에 긴급 교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30일 광주를 포함한 전국 7개 시·도에 총 246억원의 재단대책비를 긴급 편성. 이 중 광주시에 19억9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번 교부는 예년과 달리 피해규모 확정 전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 현황과 복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북구에 15억7000만원, 광산구에 4억2000만원을 우선 배정했

다. 해당 예산은 침수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 지원금,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복구 설계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긴급 교부 외에도 응급복구비 10억원(7월31일 교부), 재해구호기금 1억8000만원(7월25일 교부)을 자치구에 조기 지원해 실질적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 직후부터 유충교, 농성지하차도, 신안교, 양동시장,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 등 주요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알림

광남일보, '뉴스 읽어주는 음성서비스' 시행
오늘부터 '뉴스 본문 듣기' 클릭하면 음성 제공

광남일보는 주요 기사를 자연스럽 게 읽어주는 음성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선보인다.

광남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25년 지역신문제안사업의 일환으로 '뉴스 읽어주기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한다. 뉴스 읽어주기 서비스는 홈페이지 기사 제목 상단에 위치한 '뉴스 본문 듣기'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재생되며,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 제공한다.

뉴스 본문 듣기는 기사 텍스트의 음성 변환 서비스인 아마존 폴리(Amazon Polly)의 고급 딥 러닝 기술로 자연스러운 사람의 음성을 합성해 뉴스를 읽어주는 서비스다.

날짜별 헤드라인 뉴스 듣기를 비롯 해 원하는 세션별 주요 뉴스 제목과 부제목만 요약해서 듣기, 일주일간 인기 기사 제목과 부제목만 듣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스 읽어주기 서비스는 노인과 저시력자 독자들의 뉴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이동이나 운동 시 관심 있는 뉴스 듣기 가능, 음성뉴스 공유 등을 통해 독자들이 모든 뉴스정보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광남일보는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해 기사의 고유 가치가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